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된 권용빈입니다.
연구실 생활을 돌아보며 글을 남기려다 보니
개인적으로 지도교수님, 연구원분들 모두에게 고맙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실 분들이 대부분 진학이나 진로를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를 고려하여 글을 남기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이유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였습니다. 먼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개발을 공부하면서 보안이라는 분야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느끼고 공부를 더 하고자 함이었고, 두번째 이유는 석사 자격을 갖고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에 도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면서 하면서 지금의 연구실(CryptoCraft)을 알게 되었습니다. CryptoCraft는 신생연구실이었고 연구실을 운영하시는 서화정 교수님도 제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교수님이 대한 평가가 좋다보니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학기 서화정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하고, 학부연구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연구실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편하게 의견을 말하고, 교수님께서도 수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실은 수직적이어서 교수님이나 박사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흐트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학부연구생으로서 ‘세미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님이 각 학생들에게 좋은점 & 아쉬운점 & 방향들을 조언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공부 분위기를 맞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석사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 목적으로 대학원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보안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보안 분야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고싶다거나 혹은 저처럼 병역특례를 준비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기를 보는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지인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연구실의 조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CryptoCraft에서 학부연구생을 경험해보세요. 학부연구생으로 지내시는 기간 동안 다양한 고려사항에 있어서 좋은 조건을 가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진학 전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CryptoCraft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구요. 지금부터는 대학원 진학이후의 후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제가 가장 놀란 점은 교수님께서 철인이셨다는 점이죠. 저야 여유있어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아왔지만 실제 뽀뽀한 수업스케줄들을 소화하시면서, 수많은 논문들을 작성하시면서, 연구실을 위한 과제까지도 수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뽀뽀함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뭐든지 새롭다 보니 어떤 식으로 석사 2년을 만들어 나갈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서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다양한 보안 세미나, 보안 교육들을 보내주시고 상담해주시면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찾도록 도와주셨고 그렇게 결정된 것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분야가 결정되고 나서는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들에 보내주시고, 저의 첫 연구 주제도 잡아주시고, 블록체인 과제 경험을 쌓도록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블록체인 분야를 공부했다라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험들을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문을 쓰고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해도 괜찮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그래도 교수님 말씀이니까 최선을 다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을 따랐던 그 결정이 제가 다른 석사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귀중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 이야기 만 해서 딱딱하고 바쁘기만 한 대학원의 삶을 생각하실까봐 일상적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은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른 연구실처럼 9to9, 10to10과 같은 출퇴근 시간도 없구요. 연구 결과 세미나도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다같이 의견을 편하게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연구실 학생들끼리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될때는 카페에 가서 수도도 떨고, 식사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스팀 게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도 누군가 막막한 부분을 얘기하면 주변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도 하구요. 종종 교수님께서 회식비 주시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양꼬치집에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교수님께서도 저희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보고서 작성, 논문 제출 등 교수님께서 서류작업을 해주셔서 저는 말 그대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괜찮은 세미나나 교육이 있으면 보내주셨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교육이나 세미나들을 초반에 많이 접하면서 배경지식을 빨리 쌓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 분위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위아래 나뉘지 않도록 호칭을 통일하고, 학생들끼리 친해지도록 회식자리도 마련해주셨고요. 학생들이 연구진행상황 보고도, 온라인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가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2년 간의 석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서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도 해주시는 대로 열심히해서 공모전에 입상하고, 논문이 게재되고 하는 경험들을 하다보니 성취감에 동기부여가 되었고 2년의 생활이 끝난 지금 시점에는 제가 혼자 2년을 공부했으면 이루기 어려운 성과들이 남았다는 점이 취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플러그라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전문연구원(병역 특례)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안을 공부하고자,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두 목표도 이루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과정조차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2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보다도 학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다는 점과, 소통을 독려하신다는 점에서 CryptoCraft를 추천합니다. 다들 제가 작성한 글로 지도교수님은 어떤 분이실지, 연구실 분위기는 어떨지, 나의 앞으로의 2년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의욕만 앞서던 저를 잘 지도해주신 서화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연구 생활을 함께 했던 안규황, 권혁동, 김경호, 김현준, 장경배, 최승주, 김현지, 박재훈씨 덕분에 연구생활이 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저는 전문연구요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관련하여 더 깊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mail : vexyoung@gmail.com)